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 연구*

김혜원**

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말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 과정과 관련하여 '김동현에 의한 무지내교회의 설립'과 '서울 이남 감리교 선교 거점으로서 시흥지역'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서사를 확장·보완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감리교 선교부의 선교정책과 그에 의거한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는 하향식 흐름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앙활동이라는 상향식 흐름이 김동현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19세기 말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 및 확산은 첫째, 다수의 개신교 교단들의 한국 진출 및 상호경쟁 과정에서 감리교가 채택한 교육기관 중심의 선교 정책, 둘째, 감리교 선교부의 구역제도에 의거하여 설정된 공주·수원 구역의 가파른 성장과 궤를 같이한 시흥지역의 교세 확장, 마지막으로 감리교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김동현과 그를 도와 토착 교회 설립에 일조한 무지내의 경주 김씨 일가, 그리고 같은 시기 무지내교회와 함께 시흥지역의 교세 확장을 이끈 인근의 덕고개, 삼막골 주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역동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시흥지역의 근대 초기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함과 동시에 19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유입된 서구 문명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인 개신교가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기존에 교회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온 한국 선교 관련 문헌자료들을 역사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시흥, 개신교, 감리교, 김동현, 무지내교회

* 본 논문은 2023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이 주최한 제 18회 인문주간 학술대회 "근현대 시흥의 변화와 발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

한국 개신교 전래의 역사는 문호 개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1882년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그 이듬해인 1883년 조선 정부는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수반으로 하는 보빙사(報聘使)를 미국에 파견하였다. 보빙사는 미국에 40일간 체류하면서 미국의 산업, 경제, 문화 시설 등을 시찰하였는데 시찰 도중 기차 안에서 미 감리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이었던 가우처(John F. Goucher, 1845~1922) 목사를 만나게 된다. 평소 극동아시아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가우처는 민영익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1883년 11월 6일 뉴욕 미 감리회 해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개척비 명목으로 2천 달러를 기부하였다.¹ 또한 이 무렵에는 『크리스천 애드보케이트』(*Christian Advocate*), 『더 가스펠 인 올 랜즈』(*The Gospel in All Lands*) 등의 감리교 선교 잡지들이 한국인의 생활과 관습을 다루고 한국이 기독교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논문과 사설들을 실으면서 새로운 전도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미 감리회 해외 선교 정책 결정자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커리(Daniel Curry, 1808~1887)는 『더 가스펠 인 올 랜즈』(*The Gospel in All Lands*)에 한국 선교 착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하였으며,² 당시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한글성서 번역작업 등에 착수하고 있던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이 한국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한 내용이 1883년 11월 『더 미셔너리 리뷰』(*The Missionary Review*)에 인용되기도 하였다.³ 그 결과 다

1 이덕주(2014),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공옥출판사, pp. 82-88; Rev. R. S. Maclay, D. D. (1896), "A Fortnight in Seoul, Korea, in 1884", *The Gospel in All Lands*, New York: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357.

2 Rev. Daniel Curry, D. D. (1883), "Corea as a Mission Field", *The Gospel in All Lands*, New York: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179.

3 "VIII. Field Notes", *The Missionary Review* (November 1883), Princeton, New Jersey: C. S. Robinson & Co., Steam Book and Job Printers, p. 460.

양한 독자들이 선교부에 크고 작은 기부 금액을 보내면서 한국에 선교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우처의 의지에 힘을 보태주었다.⁴

이처럼 가우처를 비롯한 미국 국내외 선교 인력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미 감리회 해외선교위원회는 결국 한국 선교에 착수하기로 결정한다. 한국 선교 추진업무를 맡게 된 이는 당시 미 감리회 일본선교회 관리자였던 맥클레이(Robert S. Maclay, 1824~1907)였다. 가우처는 1884년 1월 31일 맥클레이에게 서한을 보내 미 감리회 해외선교위원회의 한국 선교 결정을 알렸으며, 맥클레이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맥클레이는 서울의 푸트 공사(Lucius H. Foote, 1826~1913)로부터 방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고 1884년 6월 8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6월 23일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서울에 들어와 미국 공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 실무를 관장하는 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을 통해 고종에게 미국인 선교사의 한국 사역 허가를 요청하는 장서와 사역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7월 3일 맥클레이는 김옥균으로부터 고종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비록 당시 고종이 허락한 사역 내용은 학교와 병원 사업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종교적인 분야, 즉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에 관한 사역은 아니었지만 학교와 병원 사업을 매개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⁵

이후 미국 북감리회와 북장로회가 앞장서서 한국의 의료와 교육 선교를 개척할 선교사를 선발, 파견하였으며 영국 성공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미국 남감리회 등에서도 뒤이어 선교 인력을 보내면서 서울과 서북 지방을 시작으로 빠르게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4 찰스 데이비드 스톱스(2010), 장지철·김홍수 역,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p. 56-57.

5 Rev. R. S. Maclay, D. D. (1896), "Commencement of the Korea Methodist Episcopal Mission", *The Gospel in All Lands*, New York: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498; 이덕주(2014), pp. 84-87.

서 서울 이남에 위치한 시흥지역에도 개신교가 전래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서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895년 시흥지역에 개신교가 전래되었으며, 김동현(金東賢, 1869-1928)의 주도하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역 최초의 교회인 무지내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시흥지역은 미 감리회의 서울 이남 주요 선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서사는 무지내교회를 중심으로 시흥지역 교회사를 집대성한 이진호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⁶ 이진호는 기존에 축적되어온 한국교회사 연구와 함께 『조선감리회연회록』(*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등의 영문 자료와 선교사들의 개인 기록, 그리고 일본 식민지시기 토지대장과 같은 정부문서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시흥지역 개신교의 역사를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의 시흥지역 및 무지내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회사 연구들은 대체로 이진호의 연구를 수용 또는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⁷ 이진호의 연구는 시흥지역 개신교 확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섭렵한 결과물로서 서지학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다만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에서 김동현의 독보적인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1인 서사의 성격이 강한 서술을 전개하였다. 물론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및 확산 과정에서 김동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김동현 한 사람의 역할로 한정하기보다는 19세기 말

6 이진호(2002), 『무지내교회 백사년史』, 무지내교회104년사 발간위원회.

7 시흥시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시흥시 향토지 『시흥시사』와 시흥시 과림동에서 발행한 향토지 『과림동사』 등에서도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에 관한 내용에서 이진호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차선혜(2007b),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p. 78; 최분임(2014), 「무지내교회 이야기」, 『과림동사: 어제, 오늘, 내일의 과림동을 바라보다』, 시흥시 과림동, pp. 58-59.

한국 감리회 선교부의 선교방침과 그에 입각한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시흥지역 교인들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김동현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진호의 연구를 비롯한 기존의 한국교회사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첫째, 19세기 말 시흥지역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개신교(미 감리교)가 전래되었는가? 둘째, 김동현이 무지내교회를 설립하고 이후 시흥 및 공주·수원지역 내 감리교 교세 확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 또는 토대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감리교의 한국 선교 정책, 시흥지역을 포함하는 공주·수원지역의 교세 확장, 그리고 경주 김씨 일가를 비롯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자발적으로 신앙 활동을 전개한 시흥지역 주민 등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19세기 말의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및 확산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시흥지역의 근대 초기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함과 동시에 19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유입된 서구 문명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인 개신교가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기존에 교회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온 한국 선교 관련 문헌자료들을 역사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서사 검토

2.1. ‘시흥’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서사는 이진호가 1896년 제12회 『조선감리회연회록』(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이하 연회록)상의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1856-1922)의 보고 내용을 인용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공주·수원 구역

이 구역은 서울 이남에 위치해 있다. 작년에는 (이 구역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진전만 있었다. (중략) 또한 우리는 시흥, 과천, 고양, 동막, 용시, 양천에서 선교하였다. 이 지역들은 모두 나의 어머니나 나 자신 또는 조사(助事)들이 올 한 해 방문한 곳들이다.⁸

시흥시 향토지인 『시흥시사』를 비롯하여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에 대한 서술들은 대체로 이진호가 인용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시흥’(Si Hung)이 오늘날의 시흥과 동일한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흥시는 1914년 이전의 ‘시흥군’과는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⁹ 오늘날 시흥의 행정구역은 1989년 시흥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편제된 것으로 이때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소래읍을 하나로 묶어 시흥시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군자면과 수암면은 안산군에 속했다가 1914년 안산군 해체와 함께 시흥군에 편입된 이래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역이며, 소래면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시흥군에 편입된 지역으로 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천군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1914년 이전 시기의 안산군 일부와 인천군 일부 지역이 오늘날의 시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¹⁰

8 번역 및 밑줄은 필자.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ONG JU AND SU WON CIRCUIT. This charge is to the south of Seoul. It has made only a little progress this last year because I have been unable to devote time to it. [...] We have work also at Si Hung, Koa Chun, Ko Yang, Tong Mak, Yong Si and Yang Chun. These places have all been visited during this year by either my mother or myself or our helpers.” W. B. Scranton (1896), “Kong Ju and Su Won Circuit”,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32; 이진호(2002), p. 46에서 재인용.

9 차선혜(2007b), p. 78.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출처: 네이버지도

[그림 2] 오늘날의 시흥시 행정구역

[그림 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진한 색)과 이후(연한 색)의 시흥군

결국 오늘날의 시흥은 조선시대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형성된 시흥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인데, ‘시흥’이라는 명칭은 1795년(정조 19)에 금천현의 군명을 ‘시흥’으로 개칭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1912년까지만 해도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군내면, 동면, 서면, 상북면, 하북면 등 6개면 22개 동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과천군 전부와 안산군 일부를 통합하여 북면, 신동면, 동면, 서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군자면, 수암면 등 9면 162개 리로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11,12}

10 차선혜(2007a),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p. 13.
 11 차선혜(2007a), p. 12.
 12 갑오개혁 당시의 23부제와 이후 광무개혁 당시 시행된 13도제하에서도 인천도호부가 인천군으로, 그리고 인천군이 다시 인천부로 승격하거나 안산군이 인천부 소속에서 경기도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말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발행된 자료에서 ‘시흥’이라는 지역명이 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날의 시흥과 동일한 지역을 가리킬 것이라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흥’을 언급한 1900년과 1902년 연회록 내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교회는 시흥지역의 무지내교회이다. 대가 없이 봉헌하고 있는 조사(助事) 김동현의 주도하에 이 교회는 수적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있어서도 성장하고 있다.¹³

우리는 그(스웨어러)의 지방 선교 구역의 일부를 세 개의 분기별 구역으로 조직하였다. (그중 한 곳인) 시흥은 무지내, 삼막골, 덕고개를 아우르는 지역이다.¹⁴

위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20세기 초 발행된 연회록 자료에서는 당시 인천부 전반면(1914년 이후 부천군 소래면) 소속의 무지내교회를 ‘시흥’(Si-heung) 지역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02년 연회록에서는 무지

소속으로 이전되는 등 상위 행정단위상의 변화는 있었으나 면 단위의 편제에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차선혜(2007a), pp. 17-18.

- 13 번역 및 밑줄은 필자.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only other church deserving special mention in this report is the one at Muchinae in the Si-heung district. [...] [U]nder the leadership of the helper Mr. Kim Tong Hyen, who gives his services free, the church is growing in grace as well as numbers.” Wilbur C. Swearer (1900), “Report V. Suwon and Kong-chu Circuit”,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46.
- 14 번역 및 밑줄은 필자.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organized part of his country work into three Quarterly Conferences, the Si-heung, embracing the charges at Mu-chinai, Sammak and Tok-ko-gai;” George H. Johns (1902), “Report IV. South Korea District”,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Trilingual Press, p. 42.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림 3] 무지내교회와 삼막골(당시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 덕고개(당시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표기는 필자)

내교회와 함께 당시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 소속의 삼막골 교회와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소속의 덕고개 교회를 ‘시흥’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감리회 선교부는 실제 행정구역 체계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구역 설정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1896년 연회록에서의 ‘시흥’(Si Hung) 역시 무지내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시흥지역을 아우르는 ‘범시흥지역’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김동현 중심 전래 서사에 대하여

김동현은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서사의 주인공 격인 인물이다.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김동현은 1898년 무렵 무지내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지내교회의 설립일은 1898년 12월 1일(음력 10월 18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무지내교회가 가장 먼저 언급된 『대한크리스도인회보』의 기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¹⁵

15 이진호(2002), p. 47.

무지내 교회에서 온 편지

남녀 교우들이 목사 내려 오시기를 가물 때의 비같이 기다리더니 음력 10월 18일에 달성회당 부목사 리은승 씨가 내려와 교우들의 공부를 일제히 시험한 후 19일에 쇼목사(스웨어러 목사)가 오시니 남녀노소가 다 반갑게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미 기도하고 이를 후 21일 주일을 당하여 남녀 합 40여 인이 모여 예배하고 세례를 베푸시니 남교우가 3인이오 여교우가 2인이오 남녀 아이가 10인이오 입교한 이가 4인이오 학습인의 이름을 붙이니까 5인이라. 그 이튿날 쇼목사와 리은승 씨가 떠나실 새 교우들이 목사께 청하되 매월에 한 번씩 내려오셔 죽게 된 죄인의 영혼을 구하시고 식은 마음을 덥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고 작별하였습니다.¹⁶

당시 무지내교회 설립과 운영을 비롯하여 김동현의 시흥지역 내 활동은 감리교 선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00년 연회록에서 스웨어러(Wilbur C. Swearer, 1871~1916)는 공주·수원 구역 관련 보고에서 별도의 공간을 할애하여 김동현이 무지내 교회의 운영에 공헌한 바와 함께 그가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가 없이 봉헌하고 있는 김동현 조사(助事)의 주도하에 (무지내)교회는 수(數)적으로뿐만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도 성장하고 있다. 이 사람은 배재학당에서 단기간 수학하였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나는 배재학당에 신세를 진 바가 있음을 인정한다.¹⁷

이와 같이 김동현이 무지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흥지역, 그리고 나아가 공주·수원 구역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현대어 풀이는 필자.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12월 28일 자.

17 Wilbur C. Swearer (1900), p. 46.

다만 개신교의 수용과 확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이며, 선교부와 선교사, 토착 교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동현의 전도 활동에 대하여 한국 감리회 선교부와 선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시흥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1인 중심 서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의 재구성

3.1. 감리교의 교육 중심 선교 정책

1884년 고종의 윤허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공인된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와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각 교단은 각기 다른 선교 정책을 기반으로 교세 확장에 주력하였다. 미 장로교의 경우 1884년 9월 내한하여 한국에 거주한 첫 개신교 선교사인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에 의해 활동이 개시되었다. 알렌은 한미수호통상조약 규정상 선교 사역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 거류민을 위한 의사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중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해준 것을 계기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맡는 시의(侍醫)로 임명되었고, 1885년에는 조선 정부의 후원하에 병원(廣惠院)을 세우게 되었다. 알렌에 대한 조선 정부의 호의는 이후 장로교 선교회 소속의 다른 선교사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장로교 교세 확장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1870년대부터 만주 지역에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등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찍이 전도 활동을 수행하면서 닦아 온 기반을 토대로 장로교 선교사들은 다른 교단보다 더 빠르게 성장

할 수 있었다.¹⁸ 이후 장로교는 1890년 중국 산둥성 지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존 네비우스(John Nevius, 1854~1893) 목사를 초빙하여 한국 선교사들이 실천할 선교 방법의 원칙을 제공받았다. 일명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강력한 자립성과 광범위한 순회 선교, 성서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를 주요 기조로 삼았다.¹⁹ 이후 장로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네비우스 정책’에 입각하여 토착인이 토착인에게 전도하도록 하는 ‘자전’(自傳, self-propagation), 토착 교인이 토착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자립’(自立, self-supporting), 그리고 토착 교회 문제를 토착 교인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자치’(自治, self-governing)를 원칙으로 하는 선교방침이 수용, 강조되기 시작하였다.²⁰ 네비우스 정책을 입각하여 장로교회는 순회제도와 사랑방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개인 복음전도를 강조하였다.

감리교 역시 네비우스 정책의 영향을 받아 1890년대에 들어 광범위한 순회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감리교의 경우에는 이 보다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집중하는 것을 주요 선교 원칙으로 내세웠다. 특히 교육기관은 감리교 선교 초기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서 알렌을 매개로 조선 정부의 호의와 후원을 제공받았던 장로교와 다르게 감리교 선교사들은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설립을 계기로 독립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²¹ 미 감리회의 첫 한국 선교사였던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는 1885년 6월 한국에 입국하여 한 달 후에 교육 사업

18 찰스 데이비드 스톡스(2010), pp. 83-84.

19 민경배(1973), 『한국기독교회사: 한국민족교회형성과정사』, 대한기독교서회, pp. 195-196.

20 일레로 장로교 선교사인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1867-1951)는 한국 선교사 잡지인 *Korean Repository*에 ‘자전’, ‘자립’,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네비우스 정책’을 강조하는 기사를 기고하였다. W. D. Reynolds (1896), “Native Ministry”, *Korean Repository*, Vol. 3, p. 199.

21 찰스 데이비드 스톡스(2010), pp. 118-119.

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스크랜턴의 집 한 채를 사서 방 두 칸 벽을 헐고 작은 교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8월 3일에 이경라, 고영필 두 학생을 앞에 두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887년 2월 이 학교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았고 같은 해 서울 정동에 새로 교사를 지었다. 이후 배재학당은 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점차 기틀을 잡아갔고 1890년대에 들어서는 신앙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²²

한편 1885년 6월 한국에 입국한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 1832~1909) 역시 이듬해인 1886년 5월 31일 여학생 한 명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하였다. 당시 여성의 교육에 회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학생을 구하기 어려워 가난한 집 아이와 고아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전개해야만 했다. 이후 1887년 학생이 7명으로 늘어났을 때 명성황후가 친히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교명을 하사하였으며 이후에는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1897년에 이르러서는 46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이전의 한옥 교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를 헐고 그 자리에 2층 건물을 지어 1900년 완공하였다. 1904년 중등과 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이화학당은 그동안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한국 여성을 해방시키고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보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²³ 미 감리교회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1930년대까지의 한국 감리교회를 집대성한 스톡스(Charles D. Stokes, 1915~1998)는 학교와 병원 등 기관을 매개로 한 감리교의 선교활동은 이 기관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순수한 감리교의 것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감리교회가 왜 한국에 와서 헌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직접적인 복음 활동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²⁴

22 김민영(1998), 『한국초대교회사: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과 선교 정책』, 쿤란출판사, pp. 77-81, 99.

23 김민영(1998), pp. 101-102.

24 찰스 데이비드 스톡스(2010), pp. 83-84.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등의 주도로 전개된 감리회의 교육 중심 한국 선교 정책은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와 확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1900년 연회록에서 스웨어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김동현은 배재학당에서 받은 신앙교육을 토대로 무지내교회의 설립과 운영에 이바지하는 등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와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화학당을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은 이후 지방 교육기관 설립에도 힘썼는데, 그 과정에서 1901년 무지내 교회 예배당 옆 무지리여학교의 설립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흥지역 감리교 교육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01년 연회록상의 스웨어러의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스크랜턴 부인으로부터 받은 원조로 목사관 오른쪽에 학교 건물을 짓고 있다. 스크랜턴 부인은 이곳에 선생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일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²⁵

정리하면 18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에서 개신교 교단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감리교는 교육 사업에 초점을 둔 선교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배재학당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은 김동현, 그리고 스크랜턴의 원조로 설립된 무지리여학교 등의 형태로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및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감리교의 공주·수원 구역 내 교세 확장

1890년대 중반 이후 시흥지역에서의 개신교 확산은 이 무렵 감리교회 선교부가 실시한 구역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92년을 기점으로

25 Wilbur C. Swearer (1901), "Report IV. Su-won and Kong-chu Circuit",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41.

감리교회의 한국 선교 정책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한국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이 1892년 12월에 작성한 서한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한국인 구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고 있어 선교사들이 애써 개종시킬 사람들을 물색하러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였으며,²⁶ 같은 시기 한국에서 활동한 미 감리교 선교사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는 1892년 당시 개종자가 500명 정도로 1890년 당시 100명에 비해 2년 만에 500퍼센트의 성장을 이룬 점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²⁷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로부터 기회를 포착한 감리교회 선교부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구역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교회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었고 제물포와 평양, 전주, 원산에는 선교사가 담임자로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 공주와 수원, 그리고 대구, 의주는 보완되어야 할 구역으로 분류됨으로써 전체 9개의 구역이 만들어졌다.²⁸

시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공주·수원 구역이 감리교 구역제도의 주요 단위 중 한 곳으로 설정된 것은 서울 이남 지역에 선교 거점을 확보하려는 미 감리회 한국 선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인력 및 거리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선교 후보지로 설정되어 1895년까지는 관리자를 파송하지 못하였고 서울, 원산, 제물포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교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1896년 공주·수원 구역에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이 관리자로 임명되고 순회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구역의 교세가 본격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스크랜턴은 1897년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과 함께 시흥, 수원, 용인에 걸쳐 경기도 남부지방을 순회하였다. 이 여행에서 스크랜턴은 교인들을 세례하거나 이미

26 *The Gospel in All Lands* (January 1893), p. 191.

27 조지 히버 존스(2013), 옥성득 편역, 『한국 교회 형성사: 한국 개신교의 여명, 그 첫 이야기』, 홍성사, p. 166.

28 찰스 데이비드 스톡스(2010), p. 103.

세례를 받은 교인들을 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로써 경기도 남부지역에 강력한 선교 구심점들이 형성되었다.

1896년 이후 공주·수원 구역의 가파른 교세 확장은 감리교 선교회가 작성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감리교 선교회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이하 연례보고서)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896년부터 공주·수원 구역이 새로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표 1], [표 2]).

이 구역의 교세는 1년 만에 가파르게 성장하여 1897년에는 입교인(full member)과 학습인(probationer)의 규모가 평양지역을 능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한편 개신교의 교세 확장과 관련하여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감리교 선교부의 정책과 그에 의거한 선교사들의 활동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앙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896년을 전후로 전개된 공주·수원 구역의 성

[표 1] 1895년 감리교 연례보고서(1896년 발행)

	교인		세례		주일학교		
	학습인	입교인	어린이	성인	학교	학생	교사
서울 상동	107	24	6	39	1	40	2
서울 동대문	27	18	-	2	1	45	-
서울 정동, 이화학당, 종로	70	50	1	15	2	250	7
평양	14	6	-	-	-	-	-
제물포	55	22	6	7	2	50	4
애오개	-	2	-	-	-	-	-
원산	15	-	-	-	-	-	-
합계	288	122	13	63	6	385	13

출처: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6),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250.

[표 2] 1896년 감리교 연례보고서(1897년 발행)

	교인		세례		주일학교		
	학습인	입교인	어린이	성인	학교	학생	교사
애오개	-	-	-	-	-	-	-
제물포	67	27	7	-	2	50	4
정동, 이화학당, 종로	105	62	5	22	3	250	10
동대문	39	18	-	15	1	32	2
공주, 수원	26	17	-	-	-	-	-
평양	30	21	9	-	-	-	-
달성교회, 상동	105	81	21	57	1	180	8
원산	215	4	6	-	-	-	-
합계	587	230	48	94	7	512	24

출처: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7),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243. 강조 표시는 필자.

[표 3] 1897년 감리교 연례보고서(1898년 발행)

	교인			세례		주일학교		
	학습인	입교인	본처 전도사	어린이	성인	학교	교사	학생
제물포	110	46	1	16	28	4	12	200
공주, 수원	241	29	-	5	34	4	4	150
평양	235	28	2	14	25	1	7	83
서울, 볼드윈 예배당	32	18	1	2	4	1	2	32
정동 등	96	69	3	-	19	3	9	251
달성	145	111	2	18	57	1	12	245
원산	215	4	1	7	13	1	1	6
합계	1,074	305	10	62	180	15	47	967

출처: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8),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248. 강조 표시는 필자.

장 역시 감리교 선교 정책인 구역제도가 실시되면서 구역 내 순회 선교에 나선 선교사들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앙 활동이 상호 작용한 결과였다. 이 지역 토착 교인들의 신앙 열기는 스크랜턴 모자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우리는 가는 곳마다 종교적 관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들으러 몰려왔고 그중 몇몇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방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배운 것을 기억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고, 많은 경우 우리의 말을 몇 번이고 따라 하면서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 스스로 글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열정이 들끓어서 글을 배우려는 시도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글을 가르칠 교사가 확보될 때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³⁰

이듬해인 1898년 5월에도 스크랜턴 모자는 수원과 공주 지방으로 순회 여행을 떠났다. 특히 공주지방 여행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아직 수원과 공주 지방에 주재 선교사나 토착 전도인이 파송되지 않았는데도 수원과 공주를 잇는 도로 주변 13개 마을에 입교인과 학습인을 합쳐 315명의 교인이 자발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³¹ 스크랜턴에 이어 1898년 가을 공주·수원 구역 관리자로 임명된 스웨어러 역시 매년 연회록 보고서를 통해 공주·수원 구역 교인들의 활발한 전도 활동에 기반한 교세 확장 현황을 세밀하게 기

29 이덕주(2014), pp. 405-407.

30 M. F. Scranton (1897), "Among Women of City and Country", *Korean Repository*, Vol. 4, p. 296.

31 W. B. Scranton (1898), "Su-won and Kong-chu Circuit",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26.

록하였다.

정리하면, 1896년을 전후로 하여 공주·수원 구역에서 감리교의 교세가 확장 기로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이남 지역 선교를 위하여 구역제도를 실시한 감리교 선교부의 결정과 이에 의거하여 공주·수원 구역을 여행하면서 순회 선교를 실시하고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알린 스크랜턴 모자 및 스웨어러 등 선교사들의 활발한 활동,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입교 및 전도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공주·수원 구역에 포함된 시흥지역 역시 주민들의 활발한 입교 및 전도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는 『독립신문』 1897년 7월 기사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군 채장리 사는 신화춘은 서울 정동 있는 미국 목사 원두우 씨(Horace G. Underwood, 1859-1916)의 교도인데 전도할 차로 안산군 방죽뫼에 간즉 그 동리 사는 교도 홍덕순이 말하기를 금번에 본동 사람들이 동회 하려고 동리 인민들에게 통문을 돌리는데 노소간에 발문 중에 모두 자호로 썼는데 유독 나만 관명으로 썼기에 그 발문 중에 내 성명을 빼내었더니 동장 윤가가 본군 검관 남양군에 무소하여 남양군 차사가 나를 잡으러 와서 차사 예채 이백 사십 냥을 물었노라 한즉 신화춘이 그 동중 사람들에게 남양군 차사가 받아 간 차사채 중에 일백 냥을 물려 가지고 왔더니 이 일이 탄로 되니까 원두우 씨의 교중에서 한성부로 기별한 고로 서서에서 신화춘을 잡아 경무청으로 보내었다더라.³²

이달 8일 제80호 신문에 기재한 고양군 채장리 사는 신화춘은 당초에 미국 목사 원두우 씨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교중에서도 교우로 알지 못

32 『독립신문』, 1897년 7월 8일 자.

하는 사람이어늘 이 신화춘이가 거짓 교도라 칭하고 안산군 방죽외에 가서 탁란질 하고 그 동리에서 돈 일백 냥을 가져온 일로 안산 사는 교우가 그 돈으로 말미암아 교중에 와서 말한즉 교중에서 경무청에 기별하여 신화춘을 잡아 가두고 그 돈 백 냥을 받아 보내라고 하였다더라. 교중에는 당초에 고양군 사는 신화춘이 없을 뿐더러 매양 신화춘이 같은 외인들이 협잡할 마음으로 교를 팔고 외처에서 혹 탁란하는 폐단이 있다 하기로 이러한 폐단은 교중에서 특별히 살펴서 엄금한다더라.³³

고양군 채장리에 거주하는 신화춘의 부정행위에 대해 다룬 위 기사에서 ‘안산군 방죽외’는 오늘날 시흥지역의 방죽들을 일컫는 지역으로서 물왕동, 광석동을 포함하여 도창동, 매화동, 안현동, 은행동, 미산동, 하상동, 포동까지 연결되는 넓은 들판이다. 위 기사 내용을 통해 1897년 당시 시흥지역에 위치한 안산군 방죽외에는 홍덕순과 같은 교도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모이는 교회나 그에 준하는 모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⁴ 따라서 감리교의 공주·수원 구역에서의 전반적인 교세 확장에 발맞춰 시흥지역 역시 교인들의 자발적인 집회 활동 등으로 개신교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 시흥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앙활동

앞서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서사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및 확산의 주역은 김동현이었다. 인천부 전반면 칠리(오늘날 시흥시 무지내동) 출신인 김동현은 감리교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뒤에 1890년대 중반 이후 공주·수원 구역에서의 감리교 교세 확

33 『독립신문』, 1897년 7월 13일 자.

34 차선혜(2007b),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p. 78.

장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 시흥지역의 개신교 확산을 주도하였다. 다만 앞서 강조하였듯이, 지역 내 교세 확장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며 선교부, 선교사, 지역 주민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3장 1절과 2절에서 감리교 선교부의 선교정책, 그리고 선교사들의 지방 선교활동에 주목하였다면 마지막 3절에서는 김동현과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및 확산 활동을 함께 한 지역민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무지내교회를 설립할 때 김동현의 경주 김씨 일가의 인적·물적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경주 김씨 일가는 무지내교회가 위치한 인천 부 전반면 칠리 은행동에 세거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이 일가가 개신교 전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 주민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희 아버지 이웃동네 별말에 사시다가 경주 김씨 집을 사서 이곳 무지내교회 바로 밑으로 이사왔어요. 이 동네가 예전엔 경주 김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믿었었죠. (후략)”³⁵

오늘날 시흥시 무지내동에 해당하는 지역 일대에 경주 김씨 일가가 세거했다는 사실은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174~545번지에 해당하는 전답 약 28만 9,000정보 가운데 4만 2,785정보 이상을 김동현의 경주 김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주 김씨 일가는 무지내교회 부지 확보에도 직접적으

35 무지내교회 장로인 문현모(1949년생)의 구술자료를 인용하였다. 최분임(2014), 「과림 1통(무지내) 마을이야기」, 『과림동사: 어제, 오늘, 내일의 과림동을 바라보다』, 시흥시 과림동, p. 26.

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생산한 토지조사부 공유자연명표에 따르면 무지내교회 부지인 무지리 256과 257의 소유자는 당시 무지내 구역 감리사인 버딕(George M. Burdick) 외 5인으로 되어 있다. [그림 5]를 보면 맨 오른쪽에는 버딕의 한

								地番	二五七
								所有權	
								住所	二五七
								所有者	二五七
								氏名	
	金	金	金	金	金	邊			
	春	東	應	東	東	光			
	明	燮	烈	一	晞	錄			

출처: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그림 5]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256, 257 공유자연명표

국명 변조진(邊兆鎭)을 두 줄로 긋고 “바어-덕”이라고 써있고 이어서 김동희, 김동일, 김응열, 김동황, 김춘명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김동현의 경주 김씨 일가 친척으로 특히 김동현의 사촌인 김동일은 안산지방 여러 교회의 교역자로 활동하였고 김동현의 오촌인 김응열은 그의 동생 김흥렬과 함께 무지내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정리하면, 19세기 말 김동현은 친척들의 인적·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주 김씨 세거지에 무지내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시흥지역 개신교 확산에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90년대 중반 이후 시흥지역 교세확장 과정에서 토착 교인들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지내교회와 더불어 이 시기 시흥지역 내 감리교 선교 거점으로 설정된 덕고개교회와 삼막골교회의 초기 운영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덕고개는 1914년 이전에는 파천군 하서면 도양리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곳에 1895년에 세례를 받고 개신교 신자가 된 자가 있었다는 점을 아래의 『대한크리스도인회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이진호(2002), p. 57.

과천 덕고개 교우 허대진 씨는 일천 팔백 구십오년에 세례를 받고 천 팔백 구십 육년에 입교한 후로 눈에 보이는 육신과 이상과 세상 영화를 버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과 하느님과 천국 복락을 위하여 농사하던 여러 위답 수십 석을 버리니 [중략] 근근히 연명하다가 기한을 건디지 못하고 본 년 이월에 병이 나 우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하느님께 기도하였다니 초 파일에 그 형제가 찬미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교우에게 부탁하여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라 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들이 교중 법례대로 장사하고 허 씨의 처자를 심히 위로하여 기도하노라 하였더라.³⁷

이후 1897년 덕고개 지역에 교회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한 스크랜턴의 보고에 따르면 덕고개와 더불어 수원 초평, 삼다리(현 충남 예산군 삼교리), 용인 곳은골(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등지에 교회에서 이름 붙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남성은 약 200명, 여성은 57명이었다.³⁸ 다만 이 교회당은 1901년 과천군수의 일방적인 조치로 허물어졌으며 이후 1906년에 새로운 교회당이 지어질 때까지 덕고개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안팎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극적인 신앙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⁹

한편 삼막골은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곳의 교회 설립 및 교세 확장을 주도한 이는 하영홍(河泳弘, 1879-1915)이었다. 그는 1900년에 개신교 신자가 되었으며 1901년 감리교회 지도자반에서 수학한 후 그의 진주 하씨 일가가 거주하는 집성촌인 삼막골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01년 스웨어러의 보고에 따르면 하영홍과 함께 활동한 이 지역 24명의 학습인들은 서로 혈연관계라고 하는데 이는 곧 하영홍의 진주 하씨 일가 친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01년 하영홍은 일가 소

37 현대어 풀이 및 강조 표시는 필자.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900년 4월 4일 자.

38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3월 24일 자.

39 Wilbur C. Swearer (1901), p. 42; 『신학월보』, 1901년 9월.

유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교우 일곱 가정과 함께 삼막골교회를 건축하였는데, 이 교회의 봉헌예배 때에 김동현이 개회기도를 드렸다는 점에서 김동현 및 무지내교회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정리하면,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서사에서 ‘김동현의 주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는 말은 곧 김동현이 배재학당 수학 후 경주 김씨 일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세거지에 무지내교회를 설립, 운영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890년대 중반 이후 시흥지역에서의 개신교 교세 확장은 1895년 무렵부터 자발적인 예배활동 및 교회당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추진한 덕고개 지역 주민들과, 김동현의 신앙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영흥의 주도하에 감리교회를 운영하면서 시흥지역의 또 다른 선교구심점으로 부상한 삼막골 지역 주민들의 활약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김동현은 1901년 수원지방 권사(2년급 1반)에 임명되었고⁴¹ 이듬해인 1902년에는 공주·수원 구역 내에 ‘시흥지역’(the Si-heung)이라는 별도의 단위가 설정되면서 김동현이 본처 전도사(local preacher)로서 이 지역에 파송되었다.^{42, 43} 이후에도 그는 감리회 선교부로부터 공인된 개신교 선교인력으로 성장하여 시흥 및 수원·공주지역에서 활약하였다. 또한 무지내교회의 경우에는 1902년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고 이후 1905년 무렵에는 주변의 6개 마을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1908년에는 감리교 선교부에

40 Wilbur C. Swearer (1901), p. 42; 「감리교 인물DB」,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정보자료실, <https://his.kmc.or.kr/person-dictionaries/43369?page=14> (접속일: 2024.8.18.).

41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1),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4.

42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2),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4.

43 Wilbur C. Swearer (1902), “Report V. Su-won, Ichon and Kong-chu Circuits,” *Official Minutes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The Trilingual Press, pp. 45-46.

의해 무지내 구역이 별도로 설정되기에 이른다.⁴⁴ 무지내 구역은 1912년 안산 구역에 흡수되어 김동현의 사촌인 김동일이 파송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인적·물적 지원을 토대로 자립을 추구하면서 시흥지역 개신교 확산을 주도하였다.⁴⁵

4. 맺음말

본 연구는 19세기 말 시흥지역에서의 개신교 전래 과정과 관련하여 ‘김동현에 의한 무지내교회의 설립’과 ‘서울 이남 감리교 선교 거점으로서 시흥지역’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서사를 확장,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감리교 선교부의 선교정책과 그에 의거한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는 하향식 흐름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앙활동이라는 상향식 흐름이 김동현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을 정리하면 19세기 말 시흥지역의 개신교 전래 및 확산은 첫째, 다수의 개신교 교단들의 한국 진출 및 상호경쟁 과정에서 감리교가 채택한 교육기관 중심의 선교 정책, 둘째, 감리교 선교부의 구역제도에 의거하여 설정된 공주·수원 구역의 가파른 성장과 궤를 같이한 시흥지역의 교세 확장, 마지막으로 감리교의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김동현과 그를 도와 토착 교회 설립에 일조한 무지내의 경주 김씨 일가, 그리고 같은 시기 무지내교회와 함께 시흥지역의 교세 확장을 이끈 무지내 인근의 덕고개, 삼막골 주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역동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시흥지역 무지내교회의 설립’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에

44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9),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Society, p. 115.

45 이진호(2002), p. 54.

주목하여 19세기 말 한국 사회가 서양 선교사들을 매개로 서구 문명과 상호작용하였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선교사들이 그들의 다양한 선교 활동을 개인적 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세밀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 그리고 특히 교회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들로는 시흥지역 교인들의 성별, 입교인/학습인 여부 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며 신분, 계층 등 좀 더 다양한 차원의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 발굴과 함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앞으로도 역사학 연구에서 선교사 기록물 및 교회사 연구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19세기 말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 인물DB (<https://his.kmc.or.kr/person-dictionaries>)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hgis/>)
 『대한크리스도인회보』
 『독립신문』
 『신학월보』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2)
 『감리교 선교회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코리아안 리포지터리』(Korean Repository)
 『조선감리회연회록』(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더 가스펠 인 올 랜즈』(The Gospel in All Lands)
 『더 미셔널리 리뷰』(The Missionary Review)

논저

- 김민영(1998), 『한국초대교회사: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과 선교 정책』, 쿰란출판사.
- 민경배(1973), 『한국기독교회사: 한국민족교회형성과정사』, 대한기독교서회.
- 이덕주(2014),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공옥출판사.
- 이진호(2002), 『무지내교회 백사년뉘』, 무지내교회104년사 발간위원회.
- 차선헤(2007a),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 차선헤(2007b),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 최분임(2014), 「무지내교회 이야기」, 『과림동사: 어제, 오늘, 내일의 과림동을 바라보다』, 시흥시 과림동.
- 존스, 조지 히버(2013), 옥성득 편역, 『한국 교회 형성사: 한국 개신교의 여명, 그 첫 이야기』, 흥성사.
- 스톡스, 찰스 데이비드(2010), 장지철·김홍수 역,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24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Protestantism in Siheung in the Late 19th Century

Kim, Hyewon*

This study attempts to re-examine the existing narrative center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ujinae Church by Kim Dong-hyun and the rise of Siheung as a Methodist missionary base in the south of Seoul, to better understand the introduction of Protestantism in Siheung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is end, this paper focuses on the top-down process which includes the Methodist missionary policies and the actual missionary activities, and the bottom-up process of voluntary religious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and then examines how Kim Dong-hyun worked as a medium between the two.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transmission and spread of Protestantism in Siheung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a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s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Methodist missionary policy centered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rapid growth of the Gongju and Suwon districts established under the Methodist missionary district system, and local residents including the Gyeongju Kim family in Mujinae who helped Kim Dong-hyun establish an indigenous church and nearby Deokgogae and Sammakgol residents who contributed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the Methodist expansion in Siheung in the same period.

As a case study of how Protestantism, one of the key elements of Western civilization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interacted with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odern history of Siheung. More importantly, it also aims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drawing on missionary records, which have long been used primarily by church history researchers.

Keywords Siheung, Protestantism, Methodist, Kim Dong-Hyun, Mujinae (Muchinae)